

2010 년

미주한인회총연합회

The 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s, USA

미국 중간 선거 결과와 한인 출마자 및
당선 현황 분석 보고서
‘정계 진출을 통한 한인 정치력 신장’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사무국
12/30/2010

— 목차 —

• 미국의 선거제도	3
• 중간선거 전 미국의 상하원 민주.공화 의석 분포	4
• 미국의 중간 선거 결과	5
• 미국 선거에 대한 한국인들의 각별한 관심과 자가 당착	6
• 미국의 중간 선거 18 명의 한인후보가 승전보를 띄웠다.	7
• 11 월 2 일 중간선거 출마자	8~13
• 2010 년 한인 출마자의 특징과 평가	14
• 미국 중간 선거의 역사와 결과	15~18
• ‘정계 진출을 통한 한인 정치력 신장’	19~20
• 한인 후보들의 새로운 바람	21
• 지역 한인회에서 보낸 자료	23~29

미국의 선거제도

미국은 2년마다 선거가 있는 나라다.

임기 2년인 하원 의원 전체와

임기 6년인 상원 의원의 1/3이 매 2년마다 새로 선출된다.

인구 비례로 뽑는 하원의원은 총원 435명이며, 각주를 대표하는 상원의원은 작은 주나 큰 주나 모두 2명씩 100명이 정원이다.

상원은 100명중에서 금년에는 34명을 새로 선출한다.

상원은 잔여 임기가 각각 다른 의원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미국 의회의 기준은 하원의원 기준이다.

2010년 11월 2일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들은 2011년 1월 초부터 2012년 1월 초까지가 임기인 제 112대 국회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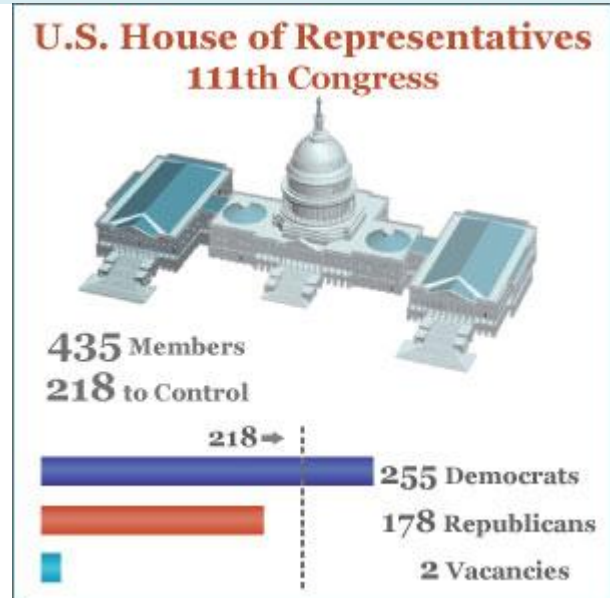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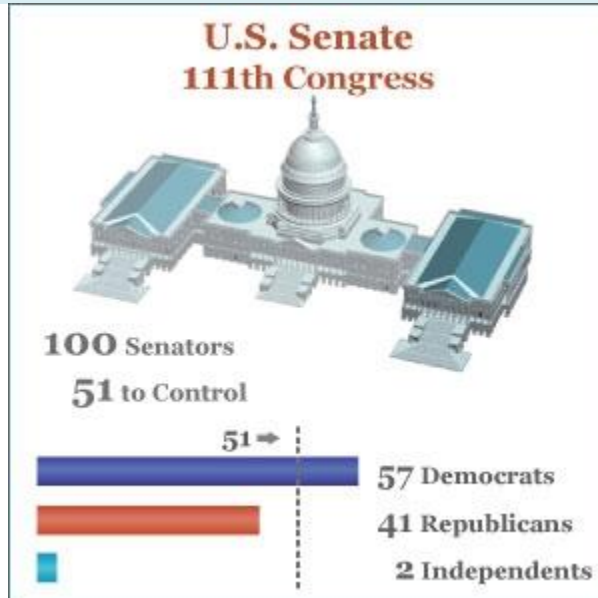
금년에 뽑힌 상원의원들은 앞으로 임기가 6년 이니 112대, 113대, 114대 미국 국회의원으로 봉직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 선거는 매 4년 마다 있고 국회의원 선거는 매 2년 마다 있게 되니 대통령 선거가 없는 해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게 되는데 이를 중간 선거라고 부른다

2010년 11월 2일 중간선거는 미국 연방 하원의원 전원과 상원의원의 3분의 1을 다시 뽑는다.

중간선거 전 미국의 상하원 민주.공화 의석 분포

상원 민주.공화 의석 분포 하원 민주.공화 의석 분포



참조 파란색-> 민주당, 빨간색-> 공화당, 청록색-> 무소속/공석

2011년 11월 2일 중간 선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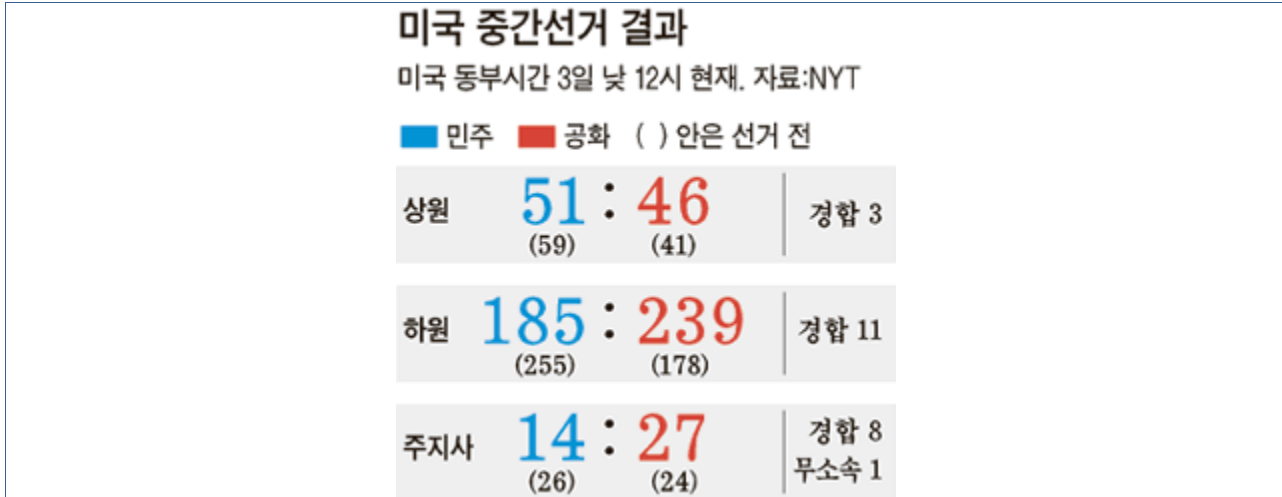
미국 국민의 관심이

-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와 신임을 판단하는 척도
_중간 신임 평가
- 차기 대통령선거를 예측하는 계기
- 최대 쟁점은 경제 이지만

우리 미주한인들의 관심은

- 미 연방 의회 내 지한파 의원들의 당락 전망일 것이다.

미국의 중간 선거 결과



중간 선거 결과 공화당은 하원선거에서 현재 의석수보다 60 석 이상을 늘리며 4 년 만에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고, 상원에서는 과반에 미치지 못했지만 5~6 석을 추가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의회 권력을 장악했다.

개표 결과 3 일 낮 12 시(미 동부 시간) 현재 435 석 전체를 다시 선출하는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은 239 석을 확보했으며 민주당은 185 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현재 의석보다 60 석 이상을 보탠 공화당의 압승이다.

전체 100 명 중 37 명을 선출하는 상원 선거에서도 6 석을 추가했지만 민주당이 최소 51 석을 확보함에 따라 상원 다수당 지위는 민주당이 유지하게 됐다. 상원에서는 일단 민주당이 51 석을 건졌고 공화당은 46 석을 챙겼다.

전체 50 개주 중 37 개주의 주지사를 새로 뽑는 선거에서는 주지사는 민주당이 14 개주, 공화당은 27 개주를 차지하게 됐다. 대공황 여파 속에 실시된 1938 년 중간선거 이래 72 년 만의 집권당 최악의 패배다.

공화당이 권력 서열 3 위의 하원의장을 비롯,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장악함에 따라 오바마의 향후 국정 수행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 지출, 건강보험 개혁, 군내 동성애 허용 등 국내 현안뿐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전쟁, 이란 핵 문제 등 대외 정책에도 정부-의회 간, 민주당-공화당 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미국 선거에 대한 한국인들의 각별한 관심과 자가 당착

이번 미국의 중간 선거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엄청난 관심을 보였다.

과거 미국 대통령 선거 못지않은 관심을 한국 국민이 보였는데 특히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일부 한국 사람들, 북한의 입장을 민족의 이름으로 두둔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공화당의 패배, 민주당의 승리를 내심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다.

오바마의 민주당의 승리는 부시의 강경한 대북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한국 언론의 보도를 보면 북한도 미국 민주당의 승리를 간절히 원한 것처럼 보인다.

한 가지 의문스러운 일은 주체를 부르짖는 북한이나 최근 자주외교를 강조하는 한국이 미국의 선거에 왜 그토록 관심을 갖느냐는 것이다.

말로는 자주를 외치면서도 그들은 스스로 미국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서도 북한 문제의 해결에 있어 미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대미 종속론자라고 부르는 것은 자가 당착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이 원하는 대로 오바마의 민주당이 승리했고 공화당이 패배 했다.

한국 언론들은 부시 행정부의 무능, 부패, 및 잘못된 이라크 전쟁 때문에 공화당이 패하게 되었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 북한 정책, FTA, 및 이라크 정책이 바뀌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희망 한다.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미 미국의 대외 정책 특히 대북한 정책에는 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천명 되었다.

이번 중간선거의 결과가 미국의 대외 정책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 외교 정책결정 과정의 일반 이론, 미국 중간선거의 일반적인 역사로부터 도출되는 경험적인 교훈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이라는 국가와 미국의 정당제도에 대한 기본을 모르고 민주당은 평화주의자, 공화당은 전쟁하는 정당이라는 왜곡된 정보는 일반 시민들 뿐 아니라 국제정치에서 상당한 지식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언론에도 만연 되어 있는 현실이다.

미국의 중간 선거

18 명의 한인후보가 승전보를 띄웠다.


주요 한인 당선자


명수	지역	성명	당선직
1.	남가주	미셸 박 스틸	주 조세형평위원-3 지구-재선
2.	남가주	강석희	어바인 시장-재선(득표율 63.2%)
3.	남가주	스티브 황보	라팔마 시의원(득표율 26.1%)
4.	남가주	밀러 오	부에나팍 시의원(득표율 16,2%)
5.	남가주	서영석	라크레센타 타운의회 시의원
6.	워싱턴 주	신호범	주 상원의원- 4 선
7.	북가주	메리 정 하야시	주 하원의원- 3 선
8.	북가주	제인 김	샌프란시스코 시의원
9.	북가주	신디 류	워싱턴 주 하원의원
10.	하와이	도나 모카 김	하와이 주 상원의원
11.	하와이	실비아 장 루크	하와이 주 하원의원-26 지구- 7 선
12.	하와이	샤론 하	하와이 주 하원의원-40 지구
13.	미시간 주	훈영 합굿	미시간 주 상원의원
14.	미네소타 주	존 최	미네소타주 램지 카운티 검사장
15.	조지아 주	박병진	조지아 주 하원의원
16.	뉴저지 주	제이슨 김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시의원- 3 선
17.	뉴저지 주	최용식(미국명 필립 최)	레오니아 시의원
18.	텍사스 주	티나 유(텍사스 5 지구)	텍사스주 항소법원 판사


중간선거에서 시장과 주 상·하원의원, 시의원 등의 타이틀을 두고 선의의 경쟁을 펼쳤던 한인후보 대부분이 당선됐다.

11 월 2 일 중간선거 출마자

11 월 2 일 중간선거에 도전하고 있는 전국 한인 후보들은 현직 출마자가 8 명인 반면 새로 도전장을 낸 정치 신인들이 15 명에 달하고 있어 미국내 한인 정계 진출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주의회 출마자가 9 명, 시의원 출마자 10 명 등으로 주정부 차원의 고위직 출마자와 풀뿌리를 이루는 지역 정부 단위 출마자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전국 각 지역별 선출직 한인 출마자들의 현황과 면면을 살펴본다.

 <p>미셸 박 스틸</p>	<p>■미셸 박 스틸(주 조세형평위원-3 지구)</p>	<p>남가주</p>
	<p>한인 여성 가운데 캘리포니아 최고위 공직자에 오른 미셸 박 스틸 조세형평국 위원이 재선에 도전한다. 미셸 박 스틸 위원은 지난 4 년동안 친근하게 다가가는 정치 스타일로 세금 부과 기관의 이미지가 강했던 조세형평국을 공평한 세금 정책을 집행하고 소규모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행정 부서로 탈바꿈 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위원은 공화당 내에서도 소수계 정치인 리더 자리를 지키며 당내 위치가 확고해 조세형평국 임기를 마치면 연방 정치권 진출이 예상된다. 미셸 박 스틸 위원은 “한인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을 돕는 세금 정책 추진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p>	

 <p>강석희</p>	<p>■강석희 (어바인 시장)</p>	<p>남가주</p>
	<p>어바인시 시의원을 거쳐 지난 2008 년 시장에 당선된 강석희 시장은 재선을 노린다. 강 시장은 한인 1.5 세 정치인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정치 행보를 걷고 있다고 평가 받는다. 경제 침체에 시장으로 부임했지만 새로운 경제 및 교육 정책을 추진해 우수한 성과를 거두면서 어바인의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확산시켰다는 호평을 얻고 있다. 강 시장은 “한인들의 지지는 나의 정치 인생의 근원”이라며 “한인들의 지지가 헛되지 않도록 재선에 성공해 진심이 담긴 정치를 구현하겠다”고 정치 호흡이 긴 정치인으로 남고 싶다”고 말했다.</p>	

 <p>롤랜드 지</p>	<p>■롤랜드 지 (플러튼 시의원)</p>	<p>남가주</p>
	<p>한인 2 세 롤랜드 지(한국명 지현영) 후보는 30 세로 오렌지카운티 차세대 한인 정치인의 대표 주자다. 신선함과 자신감이 돋보이는 지 후보는 시정부에 젊은 피를 수혈할 것이라는 이미지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고 플러튼의 한인 유권자가 전체의 20%달하기 때문에 한인들이 투표에 적극 참여할 경우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 후보는 “비즈니스맨 출신으로 친 기업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p>	



밀러 오

■ 밀러 오 (부에나팍 시의원)

남가주

한인 최초로 부에나팍 시의원에 도전하는 밀러 오(52·한국명 오상진) 후보는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하며 거시적인 시정부 운영에 관심을 갖게 돼 정치에 입문했다. 3 명의 시의원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밀러 오씨는 현재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부에나팍 시정부의 예산 정상화와 치안 강화, 트레일 건설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발로 뛰는 캠페인을 벌였다. 오 후보는 “시의원으로 당선되면 비치 블러바드 선상의 인근 상가를 개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제리 공

■ 제리 공 (부에나팍 시의원)

남가주

부에나팍 시의원 선거의 또 한 명의 한인 후보인 제리 공 후보(30)는 장기적인 개발과 행정 개선에 중점을 두는 ‘스마트 개발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2006 년 부에나팍 교육위원에 당선돼 20 대에 정계에 뛰어든 공 후보는 “부에나팍시의 척추나 다름 없는 비치 블러바드와 맬번 애비뉴 교차로에서부터 나즈베리 팜까지의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티브 황보

■ 스티브 황보 (라팔마 시의원)

남가주

스티브 황보 후보는 2 명의 시의원을 새로 선출하는 선거에 다른 3 명의 후보와 겨루고 있다. 지난 2008 년 선거에서 석패했던 경험을 토대로 정책 홍보와 인지도 높이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황보 후보는 소매상가 활성화와 시정부 인프라 개선, 교육 시설 확충으로 타 후보와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황보 후보는 20 년가까이 라팔마에 거주한 토박이로 백인 시민과 소수계 시민의 가교 역할을 해 라팔마가 다인종 도시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1 등 당선을 노리고 있는 황보 후보는 가가호호 방문 등 풀뿌리 캠페인이 효과를 거둬 당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영석

■ 서영석 (라크레센타 타운의회 의원)

남가주

서영석 전 LA 한인회장은 오는 11 월 6 일 실시되는 ‘라크레센타 벨리 타운의회 의원선거(Town Council)’에 출마했다. 서 후보는 “라크레센타 지역 주민의 약 35%를 한인이 차지하는 만큼 교육, 치안, 재난대비 등 지역문제 해결에 한인사회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출마했다”고 밝혔다. 현재 라크레센타 지역 내 한인 거주자는 약 2 만 4,000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중 유권자 등록이 된 한인은 1,060 명 정도로 파악된 상태다. 서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500 표 이상을 확보할 경우 타운의회 진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메리 정 하야시

■메리 정 하야시 (주 하원의원)

북가주

한인 유일의 주 하원의원인 메리 정 하야시(한국명 정미경) 의원은 지난 2006년 민주당 소속으로 북가주에서 당선됐다. 보건 관련 비영리 단체 활동과 사회 운동 경험으로 보건 및 사회 복지 정책에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12살 때 부모를 따라 오렌지카운티로 이민온 정 의원은 샌프란시스코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골든게이트대학에서 MBA를 받았다. 한인 세탁업자들을 위해 퍼크 폐기법 재심의를 주정부에 청원하는 등 한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제인 김

■제인 김 (샌프란시스코 시의원)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제 6 지구 시의원에 도전하는 제인 김(32)씨는 현재 샌프란시스코 교육위원회 의장으로 시의원 당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06년에 교육위원회 의장으로 당선될 당시에 시 전체 선거를 통틀어 가장 많은 득표를 얻어 샌프란시스코 정치 스타로 떠올랐다. 퀸즈지검 검사를 역임한 ‘키스’사의 김광호 법률고문의 장녀인 김 의장은 뉴욕 출신 이민 2세로 스탠포드대학 정치외교학과와 UC 버클리 법대를 졸업했다.



제니퍼 배

■제니퍼 배 (오클랜드 시의원)

북가주

제니퍼 배(한국명 배수진) 후보는 한인 2세로 한인으로는 최초로 오클랜드 제 2 선거구에 출마했다. 오클랜드 경찰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해온 배 후보는 오클랜드는 물론 북가주 한인 단체들의 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부모의 이혼 이후 간호사인 어머니와 함께 단칸방에서 어렵게 생활하면서 자란 배 후보는 어머니로부터 ‘열심히 일하는 보람’을 배웠다고 말했다.



캐시 맥도널드류

■캐시 맥도널드 (프리몬트 시의원)

북가주

캐시 맥도널드(한국명 류상은) 후보는 시정부의 야구 전용 경기장 건설 계획을 반대하기 위해 결성된 프리몬트시민네트워크(FCN) 회장이 된 것을 계기로 가정주부에서 개혁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UC 버클리를 졸업하고 동부 럿거스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1.5세인 류 후보는 “한인 사회에 대해 더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두섭

■박두섭 (주 상원의원-8 지구)

북가주

주상원 8 지구에 출마한 박두섭씨는 1970년 도미, 40년간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거주한 북가주의 올드타이머로 지난 6월 예비선거에 출마해 공화당 후보로 당선됐다. 회계학을 전공한 박씨는 선거를 “투명하게 치르기 위해서 후원행사를 지양하고 있다”며 “민주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을 위해 공정하고 책임 있는 정치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병진

■박병진 (주 하원의원)

조지아주

한인 인구가 급증한 조지아주에서 하원의원에 공화당 소속으로 출마한 박병진(46·영어명 BJ) 후보는 1.5 세로 연방법원 판사로 근무했으며 현재는 애틀랜타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박 후보가 출마한 조지아주 하원 102 지구는 전통적인 공화당 지역이기 때문에 오는 11월 2일 선거에서 박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호범

■신호범 (주 상원의원)

워싱턴주

미국내 대표적인 한인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워싱턴주 신호범 상원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4 선을 노리고 있다. 현재 주상원 21 지구에 출마한 신 의원은 지난 8월 예비선거에서 62.3%의 압도적 표차로 1위를 차지했으며 경쟁 후보인 공화당의 데이빗 프레스톤 후보가 티파티 출신의 정치 신인이어서 무난한 당선이 유력하다. 신 의원은 “당선되면 마지막 정치생활로 생각하고 한인 후배 정치인 양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디류

■신디 류 (주 하원의원)

워싱턴주

1.5 세 한인 신디 류 주 하원의원 민주당 후보는 쇼어라인 시장을 역임하고 이번에 주 하원에 출마해 워싱턴주 한인 여성 최초의 주의회 진출에 도전하고 있다. 지난 예비선거에서 42.3%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으며 이번 본선에서 민주당의 절대적 우세 지역인 32 지구 포지션 1에 출마한 상대라 이번이 없는 한 당선이 유력시된다.



티나 유

■티나 유 (텍사스 5 지구 항소법원 판사)

텍사스주

텍사스주에서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직 후보로 출마한 한인은 달라스 카운티를 관장하는 텍사스 제 5 지구 항소법원 판사직에 도전한 티나 유(36) 후보가 유일하다. 한인 1.5 세인 유 후보는 변호사 출신으로 달라스 카운티 검사를 거쳐 연방 SBA 검사, 달라스 시법원 부판사, 허친스 시법원 판사를 거친 법조인으로 이번이 2 번째 도전이다.



제이슨 김

■제이슨 김 (팰리세이즈팍 시의원)

뉴저지주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팍의 제이슨 김 시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3 선 사냥에 나선다. 지난 민주당 예선 관문을 수월하게 통과한 김 시의원은 이번 본선에서 뉴저지의 대표적 한인 밀집지의 하나인 팰리세이즈팍을 대표하는 3 선 시의원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 시의원은 “한인 유권자들과 주민들의 지지를 잊지 않고 반드시 3 선에 성공해 지역의 충직한 일꾼이 되겠다”고 말했다.



에스더 굿하트

■에스더 굿하트 (데마레스트 시의원)

뉴저지주

뉴저지 데마레스트 시의원 본선거에 출마한 한인 에스더 굿하트(한국명 백유정) 후보는 지난 2006 년과 2007 년에 이어 이번이 3 번째 도전이다. 데마레스트 타운의 경우 한인 인구 비율이 약 30%를 차지하는 한인 밀집 지역이며 한인 유권자 비율도 17%에 달하는 지역이다. 굿하트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 한인사회와 주류사회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스티브 김

■스티브 김 (주 검찰총장)

일리노이주

공화당 소속으로 일리노이주 검찰총장직에 출마한 스티브 김(39) 후보는 한인은 물론 아시안으로는 최초로 주 검찰 수장직에 도전하는 인사다. 서울서 태어나 어려서 이민 온 1.5 세인 김 후보는 일리노이주 상공회의소 국제무역 디렉터를 거쳐 노스필드 타운쉽 평의원 선거에 당선, 시카고 한인 최초로 선출 공직에 진출한 바 있다. 워너브러더스 법률자문 담당 부사장을 역임했다.



실비아 룩

■실비아 장 루크(주 하원의원-26 지구)

하와이주

올해 7 선에 도전하는 민주당의 실비아 장 루크 주 하원의원은 9 세때 하와이로 이민온 하와이 토박이다. 1998 년 당시 한인 1.5 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주 하원에 당선돼 세간의 주목을 받은바 있다. 2001 년 이민 100 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 25 만달러의 정부 지원금을 받아내는등 하와이 한인동포들의 권익을 위해 남다른 열정을 갖고 일하고 있다.



샤론 하

■샤론 하 (주 하원의원-40 지구)

하와이주

민주당 소속 샤론 하 주하원의원 역시 올해 3 선에 도전하는 한인 중견 정치인이다. 일리노이 출신의 한인 2 세로 2004 년 한미변호사협회 회장으로 선출돼 2 년간 역임하며 하와이 선거관리국과 함께 투표용지를 한국어로 제작하는데 일조하기도 했다. 원내 수자원 및 토지해양자원위, 에너지환경보호위, 재무위, 주택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도나 김

■도나 모카도 김 (주 상원의원)

하와이주

한국계인 도나 모카도 김 주 상원의원은 민주당 소속의 한인 중견 정치인으로 지난 회기 주 상원 부의장직을 맡은 바 있으며 세수세입위원장직으로 활동하며 주정부 예산안을 관장하는 등 정치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데이빗 장

■데이빗 장 (주 하원의원-28 지구)

하와이주

데이빗 장(30·한국명 성명) 후보는 하와이 한인으로는 유일하게 공화당 소속으로 초선에 도전한다.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출신 한인 2 세로 하와이 주 방위군 정보장교로 근무하고 있으며 투자전문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2010 년 한인 출마자의 특징과 평가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특히 전문성을 갖춘 한인 1.5 세와 2 세 등 차세대 한인정치인들의 의미있는 도전이 눈에 띄어 한인커뮤니티의 미래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총 7 명의 한인후보가 당선되는 쾌거를 이뤘다. 민주당 소속의 강석희 어바인 시장과 공화당 소속인 미셸 박 스틸 가주조세형평위원은 가볍게 경쟁후보들을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한인 1 세 출신 첫 미국 직선시장'인 강 시장과 '캘리포니아주 내 최고위 선출직 한인' 박 위원도 재선을 염원했던 한인들도 개표 초반부터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될 일찌감치 확정지은 두 후보에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강 시장은 "한인커뮤니티는 정치인 강석희에게 빼놓을 수 없는 큰 버팀목"이라며 "하루종일 가슴 졸이며 개표 결과를 기다려준 가족과 친구, 지역 주민들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말했다.

박 위원도 "한인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은 내 정치인생의 활력소"라며 "많은 사람들이 재선 임기를 마치고 연방 정치권 진출을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조세형평위원으로서의 업무에 충실하고 싶다는 생각 뿐"이라고 말했다.

메리 정 하야시 가주 18 지구 하원의원(민주)도 3 선에 성공했으며 부에나파크 시의원에 도전한 밀러 오 후보와 라팔마 시의원에 도전한 스티브 황보 후보도 득표율 2 위로 당선됐다. 부에나파크 교육위원회에는 헬렌 이 후보가 당선됐으며 샌프란시스코 시의원에 도전한 제인 김 후보는 득표율 1 위로 당선을 앞두고 있다.

신호범 워싱턴주 상원의원(민주)도 4 선에 성공했다. 18 세에 미국에 입양된 신 의원은 지난 1992 년 아시안아메리칸 최초로 워싱턴주 하원의원에 당선되며 정치계에 입문했고 워싱턴주 부지사를 거쳐 지난 1998 년부터 워싱턴주 상원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 의원은 현재 워싱턴주 상원 부의장을 맡고 있다.

워싱턴주 쇼어라인 시장을 지낸 신디 류 후보(민주)도 주 하원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한국인 입양아 출신으로 미시건주 하원의원으로 활약해 온 훈영 합굿(한국명 정훈영·민주) 후보도 성실함을 인정받아 주 상원의원에 당선됐다.

하와이주에서는 변호사 출신의 실비아 루크 장 주 하원의원(민주)이 7 선 고지에 올랐으며 샤론 하 주 하원의원도 3 선에 성공했다. 도나 모카도 김 하와이주 상원의원도 함께 당선되며 기쁨을 더했다.

남부 조지아주에서도 한인후보의 당선소식이 전해졌다. 9 세 때 부모를 따라 조지아주에 정착한 이민 1.5 세 B.J. 박 변호사(공화)도 조지아주 역사상 첫 한인 하원의원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박 변호사는 일리노이대 법과대학원을 졸업하고 지난 2002 년부터 6 년간 연방검사로 근무했으며 이후 쉬프 하던 법률회사의 파트너 변호사로 최근까지 일했다.

미네소타주 램지카운티 검사장에 출마한 존 최 세인트 폴 검사장도 당선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검사장은 세인트 폴에서 일할때 갱 조직 소탕과 출소자 프로그램 운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지난해 국제도시변호사협회(IMLA)가 선정한 최우수 검사장에 뽑히기도 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팍 시의원에 도전한 제이슨 김 후보도 3 선에 성공했다. 김 후보는 동부 한인 정치인 최초로 3 선에 성공했다는 의미있는 기록을 세웠다.

미국 중간 선거의 역사와 결과

제 2 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후 60 여 년 동안 미국에는 이번까지 총 16 회의 중간 선거가 있었다.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의 2 년차 혹은 재선된 대통령일 경우 6 년차에 치러지는 선거다. 중간 선거도 결국 4 년 마다 치러지는 선거니까 지난 60 년 동안 겨우 16 회 밖에 없었던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웬만한 이변이 없다면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이 선거에서 지는 것이 정상이다. 정치를 잘 못해서라기보다는 중간선거의 경우 국민들이 정부를 견제(check) 하려는 심리가 많이 작동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1946 년부터 매 4 년마다 2006 년까지 치러진 16 회의 중간 선거 중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상하 양원 모두에서 승리한 적은 오직 한 번 뿐 이었다.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상원에서만 승리한 경우 2 회, 비긴 적 2 회, 패배한 적 11 회였고 하원에서 승리한 경우 1 번, 패배한 적은 14 번 이었다. 16 번 중에서 15 번을 패 했더니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중간 선거에서 상하원에서 이길 확률은 겨우 7% 도 안된다는 말이다.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의 민주당이 승리한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며, 아마 부시 대통령의 공화당이 승리했다면 그것은 미국 역사상의 대 이변으로 기록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 60 년 동안 미국의 대통령들은 한결같이 무능, 부패 혹은 잘못된 정책

때문에 중간 선거에서 그토록 완패 했던 것이란 말인가?

한국 언론이 이번 부시 대통령의 패배를 그렇게 평가 했다. 한국 언론의 평가가 정확한 것이라면 2 차 대전 이후 미국 대통령이었던 사람들은 모두 부시보다 훨씬 무능하고, 부패하고 잘못된 정책을 행했던 대통령이라는 말이 된다.

다른 대통령들은 중간 선거에서 대체로 부시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패배 했으니 말이다. 상하 양원에서 모두 승리를 기록한 적이 단 한번 있다고 앞서서 말 했는데, 그 승리가 바로 바로 현직인 부시 대통령이 2002 년의 중간 선거에서 세운 최근 미국 정치사 60 년 동안 유일무이한 기록이다.

이번에도 이긴다는 것, 즉 현직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연거푸 이긴다는 것은 확률 상으로도 0 에 가까운 일이었고, 만약 부시 대통령의 공화당이 이겼다면 부시는 재임 중 두 번의 중간 선거를 모두 승리한 기적에 가까운 기록을 세운 대통령으로 기록 되었을 것이다.

미국 정치의 기본과 패턴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번 선거에서 부시의 패배는 거의 당연한 것이라고 기대 했을 것이다. 아무리 현직 대통령이 유능하고 인기가 좋아도 중간 선거에서는 당연히 지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미국 중간 선거의 역사가 보여주는 패턴이며 중간 선거를 분석하는 사람들의 상식이다.

정책을 평가한다는 요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을 견제한다는 의미가 더욱 강한 것이 미국의 중간 선거가 가지는 기능이다.

대통령이 너무 잘해도 견제 심리가 발동하는 법이다. 정치란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 질 때 더 잘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미국사람들은 2 차대전의 전쟁 영웅이자 컬럼비아 대학의 총장이었던 아이젠하워를 아이크(Ike) 라고 애칭으로 불렀고 I Like Ike (나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좋아한다) 는 선거 구호처럼 대통령을 존경하고 좋아했다. 아이젠하워는 1958 년 중간선거에서 상원 13 석(47→34) 하원 48 석(201→153)을 잃어버리는 대패를 당했고, 1984 년 미국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표차로 재선에 성공한 레이건 대통령은 바로 2 년 전인

1982 년의 중간 선거에서 상원 10 석(53→43), 하원 28 석(191→163)을 날려 버렸다. 부시가 잃은 상하원의 의석수는 아이젠하워와 레이건에 비하면 오히려 보잘 것 없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마지막 임기 2 년을 상하 양원 각각 64:34, 283:153 의 압도적 열세에서 보냈으며, 레이건 대통령의 마지막 2 년은 상원에서는 55:45, 하원에서는 258:177 의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수렁에 빠지거나 사사 건건 민주당에 의해 견제당하지도 않았다.

특히 레이건은 것처럼 열세인 의회를 가지고 서도 그가 원하던 소련공산 제국의 붕괴를 거의 완성한 상태에서 대통령직을 떠날 수 있었다.

레이건의 후임 부시(현 부시 대통령의 부친)는 공산주의 체제를 완전히 종식 시키는 역사적 경험을 하지만 이는 전임 레이건의 공적으로 평가 되고 있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임기의 마지막 2년을 상원에서는 51:49, 하원에서는 231:201(3석 미정)의 열세에서 지낼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차이 때문에 앞으로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대폭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미국 외교정책 결정 구조에 대한 무지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미국 의회는 미국의 대외 정책과 큰 관련이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특히 하원은 더욱 관계가 없고 상원의 경우라도 대통령의 외교정책 방향을 바꾸어 놓지는 않는다.

상원 61명, 하원 292명 등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지배하는 의회를 배경으로 했던 민주당 대통령 카터는 미국 사상 가장 졸렬한 외교정책을 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소련을 붕괴로 이끈 스타워즈 계획 등 초강경 외교정책을 성공적으로 전개했던 공화당 대통령 레이건은 겨우 상원 43명, 하원 163명의 의원을 가지고 있었을 뿐 이었다. 당시 민주당은 상원의원 57명, 하원의원 272명으로 공화당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었다.

정치는 모를 일이다. 2년 전 미국 대선 때만 해도 공화당이 이렇게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웠다.

오바마가 외친 '변화(change)'라는 지극히 평범한 구호가 먹혀들어 갔던 건 그만큼 공화당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8년 통치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유권자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비주류였던 존 매케인이 쟁쟁한 다른 후보를 누르고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탓이다.

그렇게 지리멸렬했던 공화당이 오바마 집권 2년 만에 실시된 이번 중간선거에서 되살아났고 하원을 장악했다. 사상 최대의 득표로 화려하게 등장한 오바마는 72년 만에 최악이라는 선거 패배를 겪으며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경제위기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이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해 온 오바마로서는 중간선거에서 드러난 국민의 이런 평가가 야속하게 느껴질지 모른다.

그동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종 경기부양책을 폈고 금융개혁도 이끌었다. 더욱이 역사적이라고 할 법한 의료보험 개혁도 이뤄냈다. 이렇게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자신의 노력을 국민이 몰라준다고 서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 국민은 왜 오바마에게 불만을 가졌을까? 선거 패배에 대한 오바마 자신의 진단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소통 부재 때문이라는 것이다.

선거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바마는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느끼는 좌절감을 이해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고 야당과 협력해서 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모두 우리 귀에도 매우 익숙한 이야기들이다. 오바마는 의료보험 개혁처럼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통령이 옳다고 확신하는 정책을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국민이 절실하게 원하는 것을 먼저 해결해 주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선거 패배를 통해 깨닫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대통령이 원하는 자신의 어젠다를 추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관심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줘야 하며, 그 방식도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교훈은 4 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을 둘러싸고 커다란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의 목소리는 커지게 되었고 여소야대의 상황을 맞이한 오바마는 이전에 비해 정치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 중간선거 결과를 놓고 지나치게 큰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번 선거에서 패배의 정도가 유독 심하기는 하지만 과거에도 중간선거 때가 되면 대통령의 정당은 대부분의 경우 패배했다. 지난 100년간 집권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경우는 두 번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번 선거 결과는 지난 2년간 오바마의 국정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데 대해서 다수가 공감한다는 것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야당인 공화당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중간선거 결과를 두고 2년 뒤의 미국 대통령 선거를 예측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더욱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공화당은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과 공유하게 되었다.

이번 중간선거 패배를 계기로 향후 2년 동안 오바마의 국정운영 방식이 국민의 공감을 얻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재집권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반인 지난 6월 초 지방선거를 치렀다. 그 선거 결과 역시 미국 중간선거처럼 집권당의 패배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

지방선거라는 중간평가를 통해 우리 국민도 대통령과 집권당이 변해야 한다는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선거 직후 패배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한 오바마와는 달리 그때 이 대통령은 선거 결과에 대해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지만, 그래도 집권층 내부에서는 국정운영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존재했다.

지방선거 이후 벌써 7개월이 흘렀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그 사이 과연 얼마나 변화했을까?

‘정계 진출을 통한 한인 정치력 신장’

한인 18 명 당선, 정치력 크게 신장돼

이번 중간선거는 한인 정치력 신장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전국에서 29 명의 한인이 출마해, 이중 18 명이 당선되는 경이적인 성적을 거두어. 사상 최다 출마인 동시에 최다 당선이라는 결과를 냈다.

무엇보다도 당선자들의 세대별 조화가 잘 이뤄져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이번 선거에서 워싱턴 주 상원 4 선에 성공한 70 대의 신호범 의원으로부터 샌프란시스코 수퍼바이저에 당선된 30 대 초반의 제인 정씨에 이르기까지 한인 당선자들은 연령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분포는 한인사회의 정치적 리소스가 갈수록 다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대별 조화 뿐 아니라 여성 당선자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는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21 세기 리더십과 관련해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인식변화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으로 풀이된다. 한인사회의 발전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려면 앞으로 여성 리더 육성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다.

또 이번 중간선거에서 한인사회는 유권자 등록 등 참여 측면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를 거뒀다. 한인사회의 정치력을 끌고 가는 동력은 ‘정치 참여’와 ‘정치인 배출’이라는 두 바퀴이다.

한인후보들이 많이 당선되면 한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이것은 유권자 등록 증가로 이어진다. 유권자 증가로 한인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도전이 늘어나게 되고 그 결과 정치인이 더 많이 배출되는 선순환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중간선거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주류사회의 벽을 당당히 넘어, 미주 한인사회의 오랜 숙제였던 정치력 신장의 미래를 밝게 한 것이다.

한인 당선자들의 면면을 보면, 지역적으로 전국에 골고루 분포해 있고, 시의원부터 주의원까지 정치적 영역도 넓어지고 있으며, 1 세 1.5 세 2 세 등 다양한 배경의 한인들이 정계 진출에 성공하여, 한인 정치력이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한편, 한인사회는 사상 최다 출마에 최다 당선이라는 경이적인 결과를 얻어, 한인 정치력에도 큰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

11월 2일 치러진 중간선거는 워싱턴 DC 연방 정치무대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것은 물론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다.

이를 계기로 좀 더 많은 한인들이 고위직으로 올라가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한인사회가 단결하여 적극 도와야 한다,

지금부터 젊은 세대를 비롯해 주류 정치계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 한다.

한인사회는 중간 선거의 성과를 바탕으로 좀 더 큰 무대를 뛰는 정치인을 배출하는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모색해야 한다.

재도전을 꿈꾸는 한인 출마자			
1.	남가주	제리 공(득표율 11.4%)	부에나팍 시의원
2.	남가주	롤랜드 지	플러튼 시의원
3.	캘리포니아 주	제니퍼 배	오클랜드 시의원
4.	캘리포니아 주	캐시 맥도널드 (류상은)	프리몬트 시의원
5.	캘리포니아 주	박두섭	주 상원의원-8 지구
6.	캘리포니아 주	제인 김(32.여)	샌프란시스코 시의원
7.	워싱턴주	신디 류	주 하원의원
8.	워싱턴 주	박영민	페더럴웨이 시장
9.	하와이주	데이빗 장 (한국명 장성열)	주 하원의원-28 지구
10.	하와이주	알버트 리(28. 이성규.민주당)	주 하원의원-18 지구
11.	하와이주	라이언 토요무라(25.민주당)	주 하원의원-31 지구
12.	뉴저지 주	에스더 굿하트	데마레스트 시의원
13.	뉴저지 주	케빈 오톨(공화)	주 하원의원
14.	뉴저지 주	수잔 신 앨굴로	체리힐
15.	뉴저지 주	크리스티 허	리트폴스
16.	일리노이주	스티브 김	주 검찰총장
17.	텍사스 주	심훈	사우스사이드 플레이스
18.	오리건 주	임용근	주지사
19.	뉴저지 주	최준희	에디슨시시장
20.	메사추세츠 주	샘 윤	보스턴 시장
21.	펜실베이니아주	패티 김	해리스버그
22.	버지니아주	그레이스 한 울프	헌든
현직			
23.	버지니아 주	마크 김(42)	주 하원의원
24.	워싱턴주	지명희(메리 스페어맨 판사)	킹 카운티 항소법원 판사
25.	네바다주	크리스 리(39)	라스베이거스 치안판사

현직 교육위원

26.	캘리포니아 주	제인 김(32.여)	샌프란시스코 교육위원회 의장
27.	캘리포니아 주	애나 송	산타클라라
28.	캘리포니아 주	조엘 피터슨	라카나다
29.	뉴저지주	우윤구	펠리세이즈파크
30.	뉴저지주	정재호	펠리세이즈파크
31.	뉴저지주	정덕성	레오니아
32.	뉴저지주	박일성	레오니아
33.	뉴저지주	방광훈	포트리
34.	뉴저지주	박유상	포트리
35.	뉴저지주	피터서	포트리
36.	뉴저지주	최경희	노던밸리
37.	뉴저지주	이진노	우드클리프
38.	뉴저지주	그레이스박	클로스터
39.	뉴저지주	김경화	놀우드
40.	뉴저지주	존박	크레스킬
41.	펜실버니아 주	박영근-교육위원장	몽고메리카운티의 위사히컨
42.	버지니아 주	문일룡	페어팩스 카운티
43.	버지니아 주	제임스 강	ABC 통합교육구
44.	뉴욕 주	이황용	뉴욕시
45.	뉴욕 주	에스더 정	뉴욕시

한인 후보들의 새로운 바람

이번 중간선거에 출마한 전국의 한인 후보들은 현직 출마자가 8 명인 반면 새로 도전장을 낸 정치 신인들은 그 2 배가 넘는다. 그만큼 이번 선거는 미국 내 한인 정계 진출에 새로운 바람으로 작용했다.

또 주의회 출마자가 10 명, 시의원 출마자 10 명 등으로 주정부 차원의 고위직 출마자와 풀뿌리를 이루는 지역정부 단위 출마자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도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

■ 캘리포니아

북가주에서는 메리 정 하야시 주 하원의원(18 지구)은 압도적 표차로 재선에 성공했다.

샌프란시스코 시의원에 출마한 제인 김 후보가 초반 개표 결과 1 위에 오르며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다. 제인 김 후보는 2006 년에 교육위원회 의장으로 당선될 당시에 시 전체 선거를 통틀어 가장 많은 득표를 얻어 샌프란시스코 정치스타로 떠올랐다. 퀸즈 지검 검사를 역임한 ‘키스’사의 김광호 법률고문의 장녀인 김 의장은 뉴욕 출신 이민 2 세로 스탠포드대학 정치외교학과와 UC 버클리 법대를 졸업했다.

남가주에서는 현재 한인 선출 공직 최고위직인 미셸 박 스틸 캘리포니아 조세형평위원(공화당)과 재선에 도전한 강석희 어바인 시장(민주당)이 한인 정계 진출의 길을 앞서 개척해 나가는 선두주자로 당선이 확정됐다.

미셸 박 스틸 위원은 지난 4년 동안 친근하게 다가가는 정치 스타일로 세금부과 기관의 이미지가 강했던 조세형평국을 공평한 세금정책을 집행하고 소규모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행정부서로 탈바꿈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위원은 공화당 내에서도 소수계 정치인 리더 자리를 지키며 당내 위치가 확고해 조세형평국 임기를 마치면 연방 정치권 진출이 예상된다.

어바인시 시의원을 거쳐 지난 2008년 시장에 당선된 강석희 시장은 한인 1.5세 정치인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정치 행보를 걷고 있다고 평가 받는다. 경제 침체에 시장으로 부임했지만 새로운 경제 및 교육정책을 추진해 우수한 성과를 거두면서 어바인의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확산시켰다는 호평을 얻었다.

오렌지카운티에서는 밀러 오 후보가 부에나팍 시의원에, 스티브 황보 후보가 라팔마 시의원에 당당히 당선됨으로써 새로운 한인 정치의 장을 열었다.

■타주

워싱턴주에서는 신호범 상원의원이 4선에 도전해 성공을 거뒀고 신디 류 하원의원 후보도 당선됐다.

하와이에서는 민주당의 실비아 장 루크 주 하원의원이 7선에 성공했다. 9세 때 하와이로 이민 온 하와이 토박이로 1998년 당시 한인 1.5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주 하원에 당선돼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텍사스주에서는 주 항소법원 판사직에 티나 유 후보가 도전장을 내 당선됐고 미네소타주에서는 램지 카운티 검사장에 존 최 후보가 무난히 입성에 성공했다.

이밖에 한인 인구 유입이 꾸준한 뉴저지와 조지아주에서도 한인 후보들이 대거 선거에 출마해 경제력 성장뿐만 아니라 ‘정치가 힘’이라는 구도를 깨닫고 정치 발전도 함께 꾀하는 한인 커뮤니티의 변화된 모습을 반영했다.

조지아주에서 하원의원에 공화당 소속으로 출마한 박병진(46·영어명 BJ) 후보는 판사 출신의 한인 1.5세로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출마해 당선됐다.

친한파 정치인 명단 등 부족한것이 많습니다.

한인회의 협조부족으로 아직도 많은 자료가 요하지만 이보고서가 시작이 되길 바라며...

그래도 힘껏 협조해주신 한인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료를 보신분들은 앞으로도 자료가 완성될수 있도록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한인회 자료



미주한인회총연합회

The 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s, USA

문서번호: 미총23-10-11-08
수신: 전 미주 한인회
발신: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제목: 11월 2일 중간선거 결과 자료 협조건
발신일자: 2010년 11월 08일

1. 먼저 현직 회장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건강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일 열린 중간선거 결과는 정치적 성향을 떠나 어느 해보다 한인사회의 정치력을 높였던 해였습니다.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3. 한인들의 정당 및 정치인 지지가 뚜렷했으며 후원회를 통한 한인 커뮤니티의 목소리 전달 등 조직적인 정치활동을 통한 성숙된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이라는 변화된 모습에 감동을 느낍니다.
4. 많은 한인회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투표를 독려하는 광고를 게재 하였습니다. 많은 한인들이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한인들이 원하고 한인 커뮤니티와 가까운 정치인들이 대거 성공을 거두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더 열심히 봉사해 다음 선거에는 좋은 성과를 거두기 바라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봉사해 주신 모든 한인회 회장님들께 감사합니다.
5. 이번 선거결과는 한인사회와 더 긴밀해질 수 있도록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한인사회와 가까운 정치인들이 당선되었습니다.
6. 한인 2세들이 대거 선거 운동에 참여하여 한인 2세들이 현지 정치인들과 가까워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7. 앞으로 정치인들과 만날 기회를 자주 마련해야 한인사회의 정치의식이 높아 집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한인들이 투표에 참여하게 하여 2세들의 주류정치권 진출이 활발해 질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8. 선거결과 보다도 선거 참여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를통해 이번 투표에 대한 한인회의 역할과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하여 다음을 준비하기 위한 커뮤니티 자료가 필요합니다.
9. 우리의 미래를 위한 협조를 첨부와 같이 요청하오니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지역 정치인 현황 양식 1부. 끝.

2010년 11월 8일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총회장 남 문기



The 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s, U.S.A.
3030 W 8th St #302, Los Angeles, CA 90005
Tel) 213-632-0957 Fax) 213-632-0309
info@koreanfedus.org
www.koreanfedus.org

친한파 정치인과 지역한인회 자료



미주한인회총연합회
The 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s, U.S.A.

TEL : 213-632-0957
FAX : 213-632-0309
www.koreanfedus.org

각 지역 정치인 현황

금년 중간선거에는 역대 최다수의 한인 정치인들이 출마하였고 대부분이 파격적인 지지로 당선되었습니다. 또한 각 지역별로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참여로 인해 한인들의 정치력은 더욱 더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사무국에서는 미주 각 지역 한인회의 정치력과 한인 투표율에 관련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수집하여 분석자료로 사용하고 또한 함께 공유할 예정입니다. 각 한인회 회장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이번 중간선거에 각 지역에서 출마한 정치인중 한인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한 정치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 + 당선여부와 관계없이 적어주시기 바라며 당선여부에 0표해 주세요.
- + 비고란에는 출마자의 출신(한인/아시안/미국 등)을 적어주세요.
- + 지역별로 파악된 한인 투표율도 함께 보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 + 전체 한인회에서 제출된 자료는 규합하여 미주총연 웹사이트에 게재되오니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인회 출마자 분석

소속정당	민주당:	공화당:	기타 정당: INDEPENDENT	
State	지역	중간선거 출마자 성명	당선여부	비고
RI		LINCOLN D. CHAFEE	당선	낙선
구분	연방 상원의원, 연방 하원의원, 주 상원의원, 주 하원의원, 주지사			
기타				

독립당

- * 해당 사항이 없으면 기타란은 꼭 적어주세요.
- * 미주 한인회를 위해선 위의 자료는 꼭 필요합니다. 꼭 보내주시길 간청합니다.



Letter to the South Korean Community of Rhode Island
from Senator Lincoln D. Chafee, independent candidate for Governor

October 17, 2010

Dear Friends,

I am writing to express my appreciation for a community that has been an important part of our state for decades.

The South Korean community has made vital contributions to the cultural, civic, and economic life of Rhode Island, and I am very proud of the texture it has added to the rich, diverse fabric of our wonderful state.

I have been continually impressed by the energy and commitment of the South Korean population in Rhode Island. I know that this group has been particularly active in the small business community, which is the backbone of our state's economy. As Governor, I will be a champion of these businesses and will work hard to ensure that Rhode Island is a small-business-friendly state.

Rhode Island is in a fiscal crisis. As Governor, I will work to create good, high-paying jobs, encourage economic growth, and root out the cronyism and corruption that have crippled our economy. I will bring honesty, integrity, and independence to the State House.

I will also remain committed to the ideals of Roger Williams, who founded Rhode Island on the principles of openness, tolerance, and individual freedom. Our state has always thrived on diversity, and we continue to benefit from a population consisting of a broad range of backgrounds.

With this in mind, I want to recognize and applaud the South Korean community, and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this important group in my role as our next Governor.

Best,

Handwritten signature of Lincoln D. Chafee in black ink.

Lincoln D. Chafee

Handwritten signature of Kim Seon-geun in black ink.

全 佐 根

Chafee for Governor • PO Box 9187 • Providence, RI 02940 • (401)456-0003 • chafeeforgovernor.com

Paid for by Chafee for Governor



자료제공:전좌근 회장님



전좌근 회장님이 보내온 감사편지와 그 출마자 가족사진입니다.

시카고 한인회 출마자 분석 보고				
1. 주지사				
소속정당	민주당: ○	공화당:	기타 정당:	
State	지역	중간선거 출마자 성명	당선여부	비고
ILLINOIS	ILLINOIS	Pat Quinn	당선○	낙선
구분	연방 상원의원, 연방 하원의원, 주 상원의원, 주 하원의원, 주지사			
기타	미국			

Atlanta 출마자 분석 보고				
소속정당	민주당:	공화당:	기타 정당:	
State	지역	중간선거 출마자 성명	당선여부	비고
G.A	Atlanta	Bung J Park	당선	낙선 58%
구분	연방 상원의원, 연방 하원의원 , 주 상원의원, 주 하원의원, 주지사			
기타				

미시간 앤아버 한인회 출마자 분석 보고				
소속정당	민주당:	공화당: √	기타 정당:	
State	지역	중간선거 출마자 성명	당선여부	비고
Michigan	앤아버 한인회	Rick Snyder: 주지사 Hoonyoung Hopgood: 주 상원의원	당선 당선	낙선
구분	연방 상원의원, 연방 하원의원, 주 상원의원, 주 하원의원, 주지사			
기타				

안녕하세요
수고 하십니다.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에서는 경사가 낮습니다.
백인 이 대부분으로 살고있는 지역구에서 우리 한인회 봉사자들이
압도적인 당선을 하였습니다.우리한인회 임원이사 모두 고생하였는 보람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아래와 같습니다.
소속 :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소속

1) 워싱턴주 21 지구 주 상원의원 4 선 당선:
신호범 약 64% 민주당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전직회장 2 번 역임
현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고문
지역구 백인지역

2) 워싱턴주 32 지구 주 하원의원 초선 당선:
신디류(김 신희) 약 61% 민주당
쇼라인 전 시장 역임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자문이사
지역구 백인지역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회장 이광술 드림 이사장 임광희 드림

안녕하세요 폴 송 입니다
인랜드 지역에서는 첨부한 자료와 같이 이영주 폰타나 교육위원 후보가 공화당으로
나섰다가 낙선 하였습니다

요청하신 답변드립니다.

이제는 특정 정당만의 후보를 지지했다는 것은 틀린 질문입니다.

이번의 중간 선거의 경우

뉴욕 하원 5 지구 한인유권자센터 주관 민주당.공화당 양당 후보자 최초 토론회 개최
민주당-캐리 애커맨 당선

뉴저지 포트리 한인회와 유권자센터 주관 뉴저지 버겐카운티 Executive, Sheriff,
3 명의 Freeholder 양당 후보자 전원 참석 최초 후보토론회 개최

이제는 한인 커뮤니티에서 특정한 후보를 지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후보들이 한인 커뮤니티의 지지를 받기 위해 직접 구애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버겐카운티- 공화당 후보자 전원 당선

Executive- 캐서린 도너반,

Sheriff- 마이클 사우디노

Freeholder 3 석

뉴욕주 상원 의원 11 지구- 민주당 후보자 토니 알벨라

뉴저지 연방 하원 9 선거구 민주당 후보자 스티브 로스만 당선

선거 2 주일전 한인 커뮤니티 지지호소를 위한 한인 커뮤니티 미디어대상 특별
기자회견 개최

=====

KumSuk Lee

President

동부뉴저지한인회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Eastern New Jersey

691 Hamilton Ave.

Ridgefield, NJ 07657

www.KAANJ.org

(201) 606-3808

첨부된 파일은 REF 미 중간선거 이후 대내외 정책 전망과
삼성연구소 미 중간선거 이후 대내외 정책 전망입니다.

The 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s, USA